

10/30/22

설교 제목: 택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3 장 18-38 절

(요 13: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절관주** 요 15:16, 요 17:12, 시 41:9, 마 26:14

(요 13: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둬서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 13: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절관주** 마 25:40

(요 13: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 13: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요 13: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요 13: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요 13: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 13: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절관주** 눅 22:3

(요 13: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앓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요 13: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절관주** 요 12:6, 요 13:1

(요 13: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새 계명

(요 13: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절관주** 요 12:23

(요 13: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 13:33)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절관주** 요 2:1, 요 7:34, 요 8:21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절관주** 요 2:7, 1 요 3:11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절관주** 요 2:5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마 26:31-35; 막 14:27-31; 눅 22:31-34)

(요 13:3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절관주** 요 14:2, 요 16:5, 요 21:18

(요 13: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절관주** 막 14:29, 눅 22:33

(요 13: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관주** 요 18:27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을 받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롯 유다에 대해 말씀을 꺼내십니다.

(요 13: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롯 유다를 제외한 다른 열 한 제자들은 택한 자이고 가롯 유다는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택함받지 못한 자 곧 구속 받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직전에도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 13: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 13: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요 13: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 13: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롯 유다는 제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롯 유다가 택함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과 그가 당신을 은 30 냥에 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목욕하여 온 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구속받아 원죄가 씻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당신을 팔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 가롯 유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권으로라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계획을 아시고도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허락과 허용은 다릅니다.

‘허락’은 요청한 것을 들어주는 것이고 ‘허용’은 상대가 하는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7 절에서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2 절에 마귀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본래 하려고 한 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롯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당신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롯 유다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한 몫을 감당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판 죄의 값을 짊어질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가롯 유다와 비슷한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입니다.

가롯 유다에게도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시면서 가롯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런 가롯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괴로와 하십니다.

가롯 유다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 뻔히 내다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 13: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 13: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요 13: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요 13: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요 13: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죄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회개는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원죄 아래 놓인 모든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 죄성이 흐르는지라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 말고 그들을 이끄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힘과 성령의 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롬 7: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롬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는 선한 마음과 죄의 법을 따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기울어지는 악한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 사실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좇아 살도록 강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자율 의지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을 팝니다. 마태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런 가롯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하십니다.

(마 26: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 26: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본문에는 가롯 유다와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가롯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불과 몇 시간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 13:3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 13: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 13: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당장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당신을 부인할 것이지만 후에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닭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같은 행동도 강권으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행동을 허용하신 것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면 베드로의 행동을 허용하신
것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에게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택함을 받은 제자였지만 말이 앞서고 충동적이어서 좌충우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겪은 후 그는 변화되어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게 행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이 말한대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변화하여 주님의 참제자가 되길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나 택함을 받은 자나 각자 본성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향한 기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택한 자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여전히 죄성을 따라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변화될 것을 아시고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를 제외한 다른 열 명의 제자들에게도 기대를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요 13: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 13: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 13:33)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아랑곳없이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하거나 만류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침묵하셨던 것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택하신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옳어지고 넘어질지라도 종국에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칩니다.

세상의 부모나 상사가 우리에게 기대를 가져도 감격하거늘 하물며 전지전능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하여 서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법 곧 성령의 법과 마음의 법 곧 죄의 법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법인 죄의 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 곧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죄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 속에 두 개의 법이 갈등할때 우리의 의지로 죄의 법을 떨쳐내고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의 법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법을 좇아 삽시다.

새계명을 지키며 삽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십시오.